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Bartholomew Choi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510) 562-3843 email : meoamor@gmail.com 사목회장 영광식 니콜라오 (510) 332-8782 email : myoungkwangsik@gmail.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화, 금 휴무 선종봉사회장 팽현팔 하비에르 (510) 847-3014
---------------------------------------------------------------------------------------------------------------------------------------------------------------------------	----------------------------------------------------------------------------------------------------------------------------------------------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11시 영어미사 : 매월 마지막 주 오후 4시
	평일미사	화, 목요일 오후 7:30 수, 금, 토요일 오전 7:30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 목요일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향심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대건회관
	지속적인성체조배	매월 첫 금요일 9PM ~ 토요일 7AM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와 함께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반 교육관 106호실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성령강림대축일/청소년주일 5월 31일 미사 전례 >

[입 당 송] 지혜 1,7 참조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대영광송>

[제 1독서] 사도 2,1-11

[화 답 송] 시편 104(103), 1ㄱ-과 24ㄱ-29ㄴ-30.31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 2독서] 1코린 12,3ㄷ-7.12-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요한 20,19-23

[영성체송]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당신이 사색에 잠겨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갑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화장실 유머입니다. 이 우스갯소리에 잠시 나의 화장실 습관(?)을 돌아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요즘은 화장실 안에서 사색(思索)에 잠길 시간이 없었네요. 늘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깐요. 볼일을 다 보았음에도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심지어 다리가 저려야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제관 화장실에서야 밖에서 기다릴 사람이 없겠지만,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곳에서도 그런다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사색(死色)이 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인과 박해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 안에서 편안했을까요? 안전하다고 여겨진 그 안에서 오히려 사색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달아 잠금으로써 바깥과 차단되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기쁨을 찾은 순간은 되려 잠긴 문이 열리고(혹은 잠긴 문이 소용없어지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며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쓴소리가 아닌 - 왜 문을 잠가놓고 앉아만 있는지, 왜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못했는지, 왜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지 등 - 가르치고 따지는 것이 아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며 더 큰 사랑을 보여주

셨을 뿐입니다.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 하신 사랑의 그 한 마디는 잠긴 문을 열게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이 방의 문도 마음의 문도 닫아걸었다고 말하며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두드릴 수록 그들은 더 냉랭해진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문을 두드려 열고자 했을까요? 닫힌 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가요, 그들이 걱정되어서인가요? 혹시 그들에게 어른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다그치려고 한 건 아니었는지요. 문을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즉, 사랑의 숨을 불어넣으면 잠긴 문은 스스로 열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 저마다 받은 좋은 선물로 우리 청소년들을 한 번 더 아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요한 20, 19-)

이일환 바오로 신부
춘천교구 청소년국장

-미사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6/1(월)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6/2(화)	연	고야고보(명재)	임클라라(은석)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 가족		연	이마리아(호순)	조분다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6/3(수)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아/아네스		연	오마리아/오연식	양엘리사벳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6/4(목)	연	공동체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심아브라함(재구)	가족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연	황마르코(문환)	가족		생	이야고보(원진)	이바오로(명국)
	연	정베드로(창희)	정아가다(청자)		생	크리스티나 페리	김엘리사벳
	연	박안드레아(추웅)	가족	6/5(금)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연	최모니카(임구)	최안드레아(용석)	6/6(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이마리아(호순)	조분다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연	오마리아/오연식	양엘리사벳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연	김중화/이열자	정데레사(혜경)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생	팽데레사	조분다		생	김데레사(종숙)	임클라라(은석)
					생	송윤관	송베로니카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마리아 엘리사벳(5/31) : 최미란

* 유스티노(6/1) : 최윤기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 우리의 정성

- < 주일헌금 > \$785
- < 교무금 > \$4,450
이명국(5) 정진희(4-6) 김영희(6) 김영순(2-7) 김문환(1-12)
강수영(6) 조병국(3-6)
- < 성소후원금 > \$460
정진희(4-6) 김문환(1-12) 조병국(3-6)
- < Bishop's Appeal > \$420
정진희(4-6) 김문환(1-12)
- < 감사헌금 > 김복희
- < 빈첸시오 노숙자 돕기 후원금 > 강수영

< 2020 비전 목표 >

- ♡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 ♡ 신바람 나는 공동체
(성령의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

< 실천사항 >

1.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 성당 시설이나 비품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 오클랜드 교구 내 한인성당 안내 ◆◆◆◆◆◆◆◆◆◆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주임신부 : Fr. John Kim 김종광 사도요한

주일미사 : 오전 9시(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평일미사 :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9시 30분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사무실 전화 : 925-600-0177 www.tvkcc.org

<p>광고문의 사무실 510-553-9434</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p>정 태준(안토니오) 자동차정비 & 바디 Work</p> <p>929 38th Ave. Oakland, CA 94601 ☎ 510-552-4418 Fax 510-535-0818</p>	<p>한인 크레딧 유니온은 금융기관입니다. 자동차대출, 체크링, 저금 2368 El Camino Real Santa Clara (408) 260-0900</p>
<p>송 이 웅 법 무 (510)292-6050 ldanea.song@gmail.com 1723 Telegraph Oakland</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 (510)504-9250</p>	<p>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 236-0550 강 요한</p>	<p>맥정(말가리다) 공인세무사 · Income Tax · 세무장부정리 · 신규회사 설립 · 경영, 재정상담 ☎ (510)893-2377 2633 Telegraph Ave. #213 Oakland</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건강상담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데비 양(데보라) 보험 3484 Stevens Creek Blvd. San Jose, CA 95117 408-261-1623 Lic.#0G51968</p>	<p>냉장고,세탁기,Oven,Dishwasher TV/Computer Repair (510)896-8348 LVM (510)304-7956 Cell 조승구 요셉</p>	 <p>+성지순례 전문+ ANGEL Tour & Travel, Inc. 757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대표: 이 경혜 안젤라 Tel. 213-999-6294 e-mail: angeltourtravel@gmail.com www.angeltourtravel.com</p>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